



16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2015 타이거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열렸다. 7회말 1사 1루에서 KIA 백용환 타석 때 1루주자 김민우가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 더 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김기태 “간이 커야 5강 간다”



## 연일 긴장감 넘치는 경기에 체력 부담도 커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의 더 큰 경기 해야

5강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돈의 5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전력, 체력 무엇보다 '간 크기'가 남은 와일드카드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9월 들어 KIA 김기태 감독은 '과감함'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개막 전 KIA를 최하위 후보로 꼽히게 한 전력, 경험 부족의 신진 선수들이 대거 분포하고 있는 팀의 특성상 5강 싸움을 헤쳐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17일 kt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작년이었으면 128경기 정규시즌이 끝났다. 트레이닝 파투와 이야기해보니 선수들 몸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남은 시즌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의 더 큰 경기도 해야 한다. 판단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체력적인 부담 속, 긴장감 넘치는 잔여 경기일정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간이 커야 한다'는 김 감독. 그는 베테랑 김민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KIA는 지난 16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4-3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3안타로 4득점을 만들었을 정도로 빈약한 타석 속에서 김민우의 발이 승리를 불렀다.  
2-3으로 뒤지던 7회 선두타자로 나온 김민우가 볼넷으로 출루했다. 박성호에서 권혁으로 투수가

바뀌었고 대타로 나온 김다원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1사1루. 그러자 김민우가 2루 베이스를 훔쳤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3루까지 내달리면서 김민우는 1사 3루를 만들었다. 백용환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분위기가 한화호 기우는 것 같았지만, 대타 나지완의 볼넷 이후 신종길의 땅볼 때 한화 유격수 권용관의 실책이 나오면서 김민우가 동점 득점을 만들었다. 이후 KIA는 8회 김주찬의 3루타와 필의 희생플라이로 4-3 승리를 쟁했다.  
도루 작전에 대해 "선수와 코치가 잘해서 만든 결과다. 전력 분석이 잘 되었다"고 언급한 김 감독. "감독도 깜짝 놀랐다"고 농담을 하며 모른 척 선수와 코치에게 공을 돌렸지만 김 감독은 어려운 순간

에 가장 과감한 작전을 걸었고, 베테랑은 부담감을 이겨내고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승리를 불렀다.  
김민우는 "권혁의 투구폼이 크기 때문에 도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부담은 많이 됐다. 감독님께서 도루 사인을 잘 내지 않으시는데 두 번 모두 벤치에서 사인이 났다. '내가 해줘라'하는 마음이었던 같다.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상대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달려드니까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웃었다.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엔 미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에 더 부담이 많은 베테랑의 질주였지만, 김민우는 무릎에 피가 맺힐 정도로 간절하게 또 과감하게 뛰었다.  
과감함, 간 큰 플레이가 향방을 가를 5강 싸움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고향' 찾은 kt 이대형 "가벼워도 튼튼합니다"

### 덕아웃 T 특특

▲저 튼튼합니다 = 요란했던 kt 이대형의 고향 나들이였다. KIA는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kt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광주일고 출신의 이대형에게는 고향에서 치르는 시즌 마지막 경기. 지난 시즌을 함께했던 또 다른 친정 방문이기도 했다.  
KIA의 훈련 시간에 일찍 모습을 드러낸 이대형은 여기저기에서 반가움을 나누느라 바빴다. 김민호 수비 코치와의 만남은 특별했다. 갑자기 이대형을 어깨에 들쳐메고 덕아웃으로 걸음을 옮긴 김민호 코치.(사진)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 이대형은 "가벼워야 잘 뛰죠. 저 튼튼합니다"라고 답하며 웃었다.  
김기태 감독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대형. 김 감독은 "올해는 결혼하나? 오해 친구 (신)종일이 만나나? 요즘 종일이가 호주머니에 다이어나이트 가지고 하나씩 꺼내놓고 터트린다. 한번 만나봐라"는 농담을 하며 반겼다.  
웃으면서 서로를 반겼지만 이대형은 올 시즌 KIA를 올린 천적 중 하나다. 앞선 KIA전 15경기의 타율은 0.333. 광주 7경기의 타율은 25타수 10안타, 0.400에 이르렀다.  
▲달지도 않아요 = 훈련 시간에 덕아웃에서 나란히 물을 마시고 있던 동성고 출신의 외야수 김다원과 내야수 고영우. "몇 년 차이나"는 질문에 후배 고영우는 "5년이요"라고 수줍게 대답을 했고, 선배 김다원은 "달지도 않아요"라면서 갈 길을 갔다.  
▲광수 올린다더니 왜 석민이 올렸나? = 막강 불펜 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IA. 한화에서 이적한 김광수는 기대 이상의 놀라운 피칭을 이어가



면서 허리싸움을 이끈 멤버 중 하나다. 34살 16년 차의 베테랑은 스피드도 140km 중반을 넘기면서 제 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김기태 감독에게도 놀랍고 고마운 김광수의 활약. 김 감독은 "스피드가 147km까지도 나오더라. 그것을 보고 이대진 코치에게 '아니 (김)광수를 올린다더니 (윤)석민이를 올렸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명불허전

### KGT 신한동해오픈 안병훈 1R 5언더파...김경태도 2언더파 선전

안병훈(24·사진)이 한국프로골프투어(KGT) 제31회 신한동해오픈 첫날 선두권에 올라 '월드클래스' 실력을 고국 팬들에게 과시했다.  
안병훈은 17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1·6천953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  
안병훈은 한국 골프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이 가장 높다. 56위에 올라 있는 안병훈은 올해 유럽프로골프투어 투어에서 메이저급 대회 BMW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주목을 받았다.  
프레지던트컵 인터내셔널팀 대표 선발전 11위에 올라 간발의 차이로 10위까지만 주는 자동출전권을 놓치고 단장 추천도 받지 못한 아쉬움을 3년 만에 출전한 국내 대회 우승으로 풀 기회를 맞았다.  
안병훈은 지난 2012년 경기도 이전에서 열렸던 유럽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출전 이후 한국에서 경기를 치러본 적이 없었다.  
이날 스물네번째 생일을 맞은 안병훈은 "버디 기회는 대부분 살렸고 중요한 파퍼트도 다 들어갔다"면서 "완벽한 경기였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비교적 전장도 길고 러프도 만만치 않았지만 유럽과 미국 등에서 난코스룰 두루 섭렵한 안병훈은 특유의 장타에 힘이 넘치는 아이언샷을 앞세워 거침없이 타수를 줄여나갔다.  
특히 파5홀 3곳에서도 모두 버디를 잡아냈다.  
그는 "파5홀에서 모두 버디를 잡아낸 것은 그만큼 컨디션이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안병훈은 "남은 사흘 동안 오늘날만큼 잘 되면 더할 나위 없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재형 한국 탁구 대표팀 코치와 결혼해 한국·중국 '핑퐁골'로 유명한 안병훈의 어머니 자



17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투어(KGT) 제31회 신한동해오픈' 1라운드 16번 홀에서 안병훈이 어프로치 샷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제공>  
오즈민 씨는 이날 아들의 라운드를 모두 따라 돌았다.  
안병훈은 "어머님이 지켜보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프로골프투어 삼금왕을 목표로 달리는 김경태(29·신한금융)도 2언더파 69타를 치며 1라운드를 무난하게 치렀다.  
/연합뉴스

## 미국 야구 배워라

### KIA 선수단, 애리조나 파견

KIA 타이거즈가 선전야구 습득을 위해 20명의 선수단을 미국 애리조나로 파견한다.  
KIA는 선수단이 오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크즈데일에서 열리는 '2015 애리조나 인스트럭션리그' 참가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참가기간은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장소는 미국 애리조나주 스크즈데일에 위치한 솔트 리버 필드다.  
애리조나 인스트럭션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총 20명으로 코칭스태프 4명(정희열 김진진 유동훈 김상훈), 투수 7명(신창호 정용운 박기철 최현정 박동민 김명찬 이준영), 포수 2명(한승택 박정우), 내야수 4명(최병연 윤완주 이인형 박진두), 외야수 3명(노수광 전은석 이정현)이다. 선수단 지원을 위해 구단 프런트도 4명도 동행한다.  
이중 투수 박기철과 포수 한승택은 경찰청 복무를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인스트럭션리그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인스트럭션리그에 참가한 선수단은 SK와 이번스와 연합팀을 이뤄 미국 9개팀과 19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실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한편 집중적인 기술 훈련으로 기량 향상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KIA타이거즈 관계자는 "이번 인스트럭션리그를 통해 신인 및 유망선수에게 선전야구 습득 기회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팀 전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 유일 고교 우수쿱팀

### 순천복성고에 등지 틀어

전남 유일의 고등학교 우수쿱팀이 만들어진다. 순천복성고(교장 안병권)는 18일 오전 교내 체육관에서 우수쿱팀 창단식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서만수(62) 복성고 체육교사가 감독, 장보근(31) 전남 우수쿱협회장 전무이사가 코치를 맡고 안금상, 박수현, 윤창현 등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전남에 단 하나뿐인 우수쿱팀 창단에는 순천시와 경기단체의 요청, 안병권 교장의 의지 등이 반영되면서 가능했다는 게 전남도체육회측 설명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라는 안 교장의 교육 철학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병용 전남 우수쿱협회장도 학생 선수들의 향후 진로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의 협약체결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성고 우수쿱팀은 당장 다음달 16일부터 열리는 제 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서만수 감독은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 우수쿱 명문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술'(武術)의 중국 발음인 우슈는 지난 1990년 베이징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경기 방식은 태권도 품새처럼 심판의 채점도 순위 매기는 투로 종목과 선수들이 직접 겨루는 산타 종목로 나뉜다. 지난 2010년 일본인에게 친근감을 더하기 위해 협회 이름에 '쿱'을 더해 한국 우수쿱협회로 이름을 바꿨다.  
/김여울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서 전국 보치아선수권 개막

### 20일까지 개인전

제 9회 전국 보치아선수권대회가 17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개막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표적구에 공을 던져 표적구로부터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룬다.  
이번 대회는 20일까지 개인전으로 진행되며 14개 지역에서 선수 129명 등 모두 3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경기는 남녀 구분이 없는 혼성 종목이지만 장애 정도와 종류에 따라 BC1~BC4로 등급이 분류된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 금메달을 획득한 김지함·신철인·정창기 선수 등 11명이 출전, 메달을 노린다.  
한국은 1988 서울 장애인올림픽부터 2012 런던 대회까지 7연속 금메달을 딴 보치아 강국으로 꼽힌다.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회장 성동숙) 주관으로 진행되며 하이트진로, 오텍그룹 등이 힘을 보탤다.  
/김지함기자 dok2000@kwangju.co.kr